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순환경제”... 인프라·기술 개발 가속

전기차 확산 추세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원에서 2050년 약 6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차되는 전기차가 늘수록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25년 56만대에서 2040년 4227만대, 이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은 44GWh(기가와 트시)에서 3339GWh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 속도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내년이면 1세대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된 지 약 10년이 돼, 배터리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후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공정은 방전·해체·파쇄 순으로 이뤄진다. 사용 후 배터리 내부 전류를 완전히 없애는 방전해체 후 이를 가루 형태로 분쇄한다. 만들어진 가루를 블랙 파우더라 부른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블랙 파우더를 습식 제련해 핵심 원료를 뽑아낸다. 주로 양극재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협력을 통한 폐배터리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각 사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활용하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 /사서터스톡

글로벌 폐배터리재활용 시장규모 2030년 70조서 2050년 600조 전망

배터리 업계, 기업 간 협력 전략 국내외 재활용 밸류체인 강화 전구체 복합액·양극재 생산 등 신규 공장 가동으로 시장 진출

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현대글로벌비스와 에코프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전기차 운송에 특화됐으며 에코프로는 배터리를 회수해 처리를 거쳐 블랙파우더로 만드는 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국내외 재활용 사업 밸류체인 강화뿐만 아니라, 재활용 사업 운영체계, 재활용 공정 자동화 등 사업 전반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는 미

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레드우드사는 오하이오주 워런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1공장과 테네시주 스프링힐 소재 2공장에서 발생한 양·음극재, 배터리 스크랩을 받아 재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새빛캠, GS건설 등이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새빛캠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구체 복합액, 재활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하반기 폐배터리 공장을 상업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대비해 폐배터리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세 번째 전기차 ‘EV3’ 합리적 가격에 대중화 선도

전국 지점·대리점 등서 계약 시작 충전 인프라·중고차 가격 보장 등 전기차 이용 편의성 극대화 앞장

기아가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끈다.

기아는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더기아 EV3(The Kia EV3, 이하 EV3)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지난 4일부터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서 계약을 시작했다

EV3는 국내 시장 기준 21년 기아 첫 E-GMP 기반 전기차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다.

기아는 EV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해 더 많은 고객이 전기차를 접하게 함으로써 기아의 전동화 선도 브랜드 지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V3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스탠다드 모델 ▲에어 4208만원 ▲어스 4571만원 ▲GT 라인 4666만원, 롱레인지 모델 ▲에어 4650만원 ▲어스 5013만원 ▲GT 라인 5108만원이다.

기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 적용 기준 EV3의 판매 가격을 스탠다드 모델 3995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 4415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고객들이 스탠다드 모델은 3000만원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000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정부 부처 인증 절차 완료가 예상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는 고객이 전기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아의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e-라이프 패키지’를 선보인다.

e-라이프 패키지는 고객이 전기차 보유과정 전반에 필요한 충전, 차량케어,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한데 묶은 전기차 전용 프로그램으로, 이번 EV3 계약 개시에 맞춰 신규 서비스를 추



기아 더기아 EV3 실내. /양성운 기자 ysw@

가하고 기존 운영 서비스를 일부 개편했다.

기아는 고객의 편리한 충전을 위해 ▲단독/공동주택 등 거주 환경 맞춤형 충전기 설치 지원 서비스 ▲공용 전기차 충전소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 로밍 서비스 및 구독형 충전 요금제 ▲긴급 충전 필요 시 차량 픽업 후 충전 및 인도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픽업 충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아 EV 구매 후 3년 내 기아 신차 구매 시 중고 EV 잔존가치를 최대 60%까지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기아는 디즈니와 협업을 통해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와 EV3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영화관에 차량을 전시하며 ‘인사이드 아웃 2’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기아 카앰라이프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은 “차급을 뛰어넘는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EV3의 국내 계약을 시작하며 고객이 다양한 접점에서 EV3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주저한 고객이 망설임 없이 EV3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더기아 EV3 외장. /김승중 기자 sejkim@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공용 유심 ‘원칩’을 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LGU+, ‘원칩’ 철도역 편의점서도 판매

공용 유심 스토리웨이 판매개시 지하철역 자판기 판매 호조 영향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공용 유심 ‘원칩’을 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원칩은 그동안 전국 이마트24 편의점, 지하철역 자판기 등 오프라인 채널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이었다. 이번에는 전국 한국철도공사 관할 철도역 내부에 있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240개점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원칩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원칩 판매 건

수는 60만개로 지난 2년간 연평균 220%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오프라인 채널 판매량이 52만개로 약 88%에 달했다.

특히 전국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4만개가 넘는 원칩이 판매됐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하철역 자판기 388대에서 원칩을 판매했으니 자판기 1대당 평균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100개가 넘는다.

LG유플러스는 지하철역에서 원칩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 수요를 확인해 스토리웨이 편의점으로 판매 채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골드번호’ 주인공 누구? 번호 1만개 추첨 나선다

SK텔레콤이 ‘1111’, ‘0002’, ‘3000’ 등 특정 패턴 또는 특정한 의미(‘1004’, ‘1472’ 등)를 갖는 골드번호 1만개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골드번호는 기억하기 쉽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골드번호는 숫자가 ABCD-ABCD형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유형이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정부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가입 고객이나 신규 가입 예정 고객 모두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T다이렉트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당첨 결과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 사이에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과 T다이렉트샵에서 등록해야 한다.

/김승중 기자 sejkim@